

■ 특특뉴스

자장면 1그릇 6,500원 넘었다

고물가 상황이 지난해 주요 외식품목 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기준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작년 1월부터 많게는 13.8%까지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연초에는 5,769원이었지만 12월에는 6,569원(13.8%)까지 올랐다.

이어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이 1만6,983원에서 1만9,031원으로 12.0%, 김밥이 2,769원에서 3,100원으로 11.9% 올랐다. 이 밖에 삼계탕(11.2%)과 갈국수(9.8%), 비빔밥(7.9%), 냉면(7.8%), 감자찌개(5.9%) 등도 모두 연초와 비교해 값이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 그래픽 경제

국제금값 추이

2월 인도분, 종가 기준 단위: 달러(온스 당)



자료: 뉴욕상품거래소 연암뉴스

다시 오르는 금...6개월만 최고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국제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기업 활력 제고·경제 위기 극복에 전력”

☞ 새해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⑧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올해도 국내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경정은 그 속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와 경제 위기 극복에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 포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된 해였다”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14년만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높은 금리와 자금 경색으로 소상공인,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해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측되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1%대로 낮게 전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한 김

광주, 전기차 생산·AI 산업 선도
넓은 범·제도 고쳐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 함께 위기를 기회로



회장은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경직적 노동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 경제 전망은 더더욱 어두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5만대 생산을 달성하고 올해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 준비에 나선다는 점과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산업 기반 마련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광주 지역 경제로서는 다행인 지점이라고 짚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올 2023년 한 해 기업의 활력 제고와 경제 위기 극복에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김 회장은 “시대 변화에 맞게 넓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경총과 더불어 대정부 및 의정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고용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산업 대전환 시대에 우리 지역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경험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경영혁신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금융조찬포럼 또한 산업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영 트렌드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속적인 회원 배가 활동을 통한 회세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경영계의 동참을 확산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인 노동경제 정책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광주경총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첫 행보 ‘증기 애로 청취’

한영피엔에스 사업장 방문
필요한 금융지원 사항 파악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 파악에 나섰다.

고 은행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이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를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면담에서 고 은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

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 가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지금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객과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짐으로써 작지만 강한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 거듭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이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를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www.shb2b.kr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건축, 대형빌딩, 병원, 대학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대형건물용 **신철우** 시스템에어컨 360

대형건물용 **신철우** DVM S2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

서광주IC,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용봉진입로, 문화소통로(일방통행로), 용봉지구대, KFC, 대계수산, 전자랜드 용봉점, LG전자 용봉점

시스템에어컨 파트너 유한회사 하우젠공조시스템

영업직원 수시모집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